

데스크시각



김미은
여론매체부장·편집국 부국장

그가 담배 한 대를 피워 물었다. 공중에 흩어지는 담배 연기에 온갖 상념이 담긴 듯했다. 짧은 머리의 무표정한 그는 푸른 수의를 입고 있다. 좁디 좁은 교도소 독방 벽에 기대 앉아 담배를 피우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는 사형을 선고받은 후 무기수가 된 한 인간의 고독과 초월과 더불어 어떤 안간힘 같은 것을 보았다.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다큐 '길 위에 김대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81년 성남 육군교도소에 수감됐을 때 중앙정보부가 촬영한 이 영상은 대통령 취임 후 당사자에게 전달됐다.

다큐 속 DJ의 담배 한 개피

영화를 보는 내내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김대중을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것과 '김대중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점이다. 극장에서 만난 이들의 반응도 비슷했다. 한국 현대사를 그대로 관통하는 그의 삶이 펼쳐질 때마다 세상 그의 진가를 확인했고, 얼마나 그의 삶이 왜곡돼 전해져 왔는지도 알 수 있었다. 그는 '우리 시대의 큰 어른'이었다.

그는 한 인간이 겪은 일이라고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네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고,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

은펜칼럼



김창군
빛고을고등학교 교장

벌써 재작년 일이 되었다. SNS를 등에 업고 직장인 사이에서 널리 퍼진 신조어로 '조용한 사직(Quiet Quitting)'이 있었다. 실제로 퇴사하지는 않지만 정해진 시간과 업무 범위 안에서만 일하고 초과근무를 거부하는 노동 방식을 뜻하는 말로, 미국의 엔지니어 자이들 켈린(Zaidle ppelein)이 틱톡에 올린 영상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고 한다.

이전에도 주위에는 비슷한 맥락의 신조어가 있었다. 일과 일상의 균형을 찾으려는 '워라밸', 일에 따른 성취 보다는 일상의 작은 만족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뜻하는 '소확행'이 그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신조어의 유행에 편승한 바탕에는 직장 생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깔려 있다고 한다. 일이 곧 삶이 아니며, 본인의 가치가 직장에서의 성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서 출발하여 승진과 과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는 욕구가 코로나 팬데믹과 맞물린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신조어가 특정 세대의 전유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흔히 말하듯 언어는 살아 숨쉬는 유

기고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

인천국제공항 교통통계 등을 종합하면 매년 해외에 나가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광주·전남·전북 시도민은 121만명에 달한다. 이들이 고속철도 등을 이용해 인천공항을 가는데 드는 교통비만 연간 1100억 원, 3~4시간 이상의 소요시간을 환산한 비용은 900억 원으로, 매년 안 써도 되는 돈 2000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지난 5년간 호남지역민 605만명이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1조원 이상의 비용을 더 지냈다.

지역민들이 인천·김해국제공항 대신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한다면 연간 교통·시간 비용은 5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광주에서 무안국제공항까지 자동차로 40분, 2025년 호남고속철도가 완공되면 22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서둘러 광주·무안국제공항을 통합해 무안국제공항이 호남과 세계를 잇는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위상을 되찾았다면 지역민들의 금전적 손실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지금의 무안국제공항은 광주·무안으로 서남권의 항

김대중과 김장하, 시대의 어른

에서도 보복은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었다. 무작정 반대와 투쟁이 아닌, 탁월한 논리와 대화로 상대를 압박하고 설득시킨 전략가였다.

영화는 불굴의 신념을 가진 정치인 김대중, 세상을 보는 넓은 혜안을 가졌던 학자 김대중, 그리고 인간 김대중을 보여준다. 손바닥만한 봉합염서에 깨알같은 글씨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신', 이희호 여사에게 편지를 쓰는 장면은 명물이다.

5·18 후 처음 광주를 방문한 그가 망월묘역에서 울음을 터트리는 장면에선,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을 찾아 권양숙 여사의 손을 잡고 눈물을 쏟아내던 모습이 겹쳐진다. 영화관 객석 이곳 저곳에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보였다.

지난해에는 다큐를 통해 또 한명의 어른을 만났다. 경남 진주에서 60년간 한약방을 운영하며 나눔을 실천한 김장하 선생이다. 다큐 '어른 김장하'를 보면서는 줄곧 이런 생각을 했다. '세상에!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네.'

자신의 이름을 딴 다쿠지만 정작 본인이 취재와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아 주변인들의 '입'을 통해 그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는 "내 친척은 한 명도 안쓰겠다, 돈을 받고는 한 사람도 채용하지 않겠다, 권력에 굽히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고등학교를 설립해 명문으로 키워낸 후 국가에 기부채납했다. 1000여 명 가까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던 그는 "돈이라는 것이 똥이랑 똑같아서 모아놓으면 악취가 진동을 하는데 밭에 골고루 뿌려 놓으면 좋은 거름이 된다"는 신념으로 진주의 문화, 인권, 사회, 환경, 언론을 지원했다.

그는 "내가 쓴 돈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돈이기에 사회에 되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평범한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기에 이 세상이 유지된다"고 했다. 그는 평생 자동차가 없었고, 주머니가 다 헤진 낡은 양

복을 줄곧 입고 다녔다.

장학금 수혜자였던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전하는 이야기도 감동적이다. 법관이 된 후 감사인사를 하자 김장하 선생은 "사회에서 준 것을 돌려줬을 뿐이니 나에게 고마워하지 말고, 후시 깊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회에 갚으라"고 말했고, 그는 평생 이 말을 마음에 새겼다. 오래 전 전주지원장으로 발령받았을 땐 "공직자가 사는 밥을 먹을 수 없다"며 초대를 거부, 문 재판관은 진주를 떠날 때에야 7000원 짜리 해물탕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었다고 한다.

각자도생 시대 삶의 나침반

영화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은 어느 모임과 행사든 늘 구석자리를 찾는 그의 모습이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서운해하는 세상, 자신의 능력을 부풀리고 남의 권력을 자기 것인 양 호가호위하는 세상에 보내는 따끔한 일침처럼 느껴져 웬지 뜨끔했다.

오늘도 출근길에 국회의원 입지자들의 플래카드를 본다. 출판기념회, 여론조사 참여 독려 전화도 이어진다. 국민의 말에, 시민의 말에 귀 기울여겠다는 건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의 사탕발림이라는 걸 모두 안다. 물론 정치인만 욕할 일은 아니다. 불신과 무관심으로 점철된 정치 실종의 시대, 역사와 민주주의의 퇴행을 걱정하는 시대, 각자도생이 신념처럼 자리한 시대에 '두 어른'의 삶은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누군가의 삶을 통해 스스로를 반추하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면 그 또한 의미있는 일이다. 10일 개봉하는 '길 위에 김대중'이 앞으로 많은 시간 '길 위에서 있을' 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 물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고.

신조어, 소통의 장벽을 넘어서

기체이기에 시대와 계층의 삶을 아우르는 생각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대외 접촉이 단절되었을 때, '확진자'에 대응하여 꼼짝없이 집에 갇혀 살만 써주고 있다는 '확찐자'가 시류의 한 단면을 표상했듯이 말이다.

그런데 신조어로 인해 소통의 난항을 겪는 경우가 있다. 얼마 전 방송에서는 자칭 트린남(트렌드에 민감한 남성)을 자처하는 모 진행자가 '드르륵 각(편의점)'이라는 신조어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문 닫는 소리라고 추측하여 주위의 폭소를 자아낸 적이 있었다. 이쯤은 가볍게 웃고 지날 일이지만, "안 보면 끝무서(후회)됨. 보면 롱콕(눈물)"에 이르면 신조어가 아이와 부모의 소통을 막는 외계인의 음모라는 말이 맞는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본격적으로 사귀기 전 친근한 단계를 흔히 '썸탄다'고 하는데, 사(4) 권다에서 유추하여 '삼권다'로도 표현하는 젊은이의 머릿속에서 플라스틱 의자가 땅에 깔리는 소리로 사물을 지칭하는 명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더욱이 당혹스러운 인터넷 밈이던 이른바 야인족(野人足)은 이제 익숙하게 다가서기도 한다. '맹명이 커워워'라고 쓰고 '맹명이 귀여워'로 이해하는 사람이 제법 늘어났는데, '집 앞에 있는 편의점 드르륵 각에서 보자.'가 일상 대화로 쓰이는 세상이 머지않아 울지도 모르겠다.

한편 사이버 공간과 정보에 대한 활용 능력이 뛰어난 MZ의 특성과 맞물려 졸업률이 늘고 있다. '구취' (구독

취소), '제곧내' (제목이 곧 내용)를 보면 '별다줄' (별것을 다 줄인다)이라 할 만도 하다. 하지만 1960년대 중반기 청소년 은어에 이미 '아더매치' (아니꼽고 더럽고 매스껍고 치사하다)가 있었고, 역세권(驛勢圈)에 빗대어 대형 프랜차이즈가 가까운 아파트를 일컫는 '스세권', '멕세권'과 함께 '초품아'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는 성인들 사이에서 뜬 신조어이기도 하다.

이러한 신조어는 시대의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존 언어를 넘어 새로운 사회 현상을 정확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말의 다양성에 기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반면 신조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언어 규칙을 파괴하고 세대 간 소통을 저해하는 데 있다. 맞춤법을 간략히 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던 슬랭이 자기소개서에 비롯이 등장한다. 방송 자막에도 가끔 등장하는 '탈틀라', '리즈 갱신'의 맥락적 의미를 잃어내는 기성세대는 얼마나 될까.

신조어의 순기능을 심본 이해하지만, 세대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언어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도 중요 함을 알아야 한다. 손가락이 왕자(공주)여서 스스로 정보를 찾으려 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질문만 하는 사람을 '핑프' (핑거 프린스/프린세스)라고 하는데, 기성세대의 원류한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신조어에 능숙한 세대도 '고인물' (한 분야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라 '뉴비' (어떤 분야에 미숙한 초보자)의 처지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군·민간공항 무안 이전의 또다른 이유

공 수요가 분산되고,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을 반대하는 뜻에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시에 갈등이 있는 이 순간도 호남지역민들은 시간적·공간적·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

다행히 지난해 12월 17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 회담을 갖고 2025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광주-군-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이전하기로 합의했다. 2023년 5월 합의 과정에서 민간공항 문제는 별도 논의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던 것과 달리 이번 회담은 상호 상생에 공감하고 실태처럼 얽혀있는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를 서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당사자인 무안군도 참석했으면 금상첨화였겠지만, 앞으로 광주시와 전남도가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노력한다면 조만간 대화의 장에 합류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완공될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무안국제공항의 접근성 향상 효과와 함께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항으로의 이동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이용객들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무안국제공항역을 시작으로 무안읍과 그 주변 도시는 북적거리는 사람들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 지역 지원사업 1조원 규모 지원, 맞춤

형 지원방안 협의, 이주 정착금, 자족 기능 갖춘 신도시 조성, 공무원 교육원 이전 등 다양한 지원 방향을 제시하며 무안군의 발전을 약속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해 12월 14일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미래산업과 기반시설이 함께 발전하는 글로벌 허브 도시를 만들기 위해 미래 신산업, 첨단 농업, 해양관광, 사회간접자본(SOC) 등 3조원 규모의 초대형 6대 미래 비전 계획을 제시했다.

항공 복합도시 조성 사업은 국가경쟁력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다. 이미 해외 선진공항 주변 지역은 국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성장동력 기지로 인식하고 항공 복합도시로 개발하고 있다. 무안국제공항은 사통팔달 접근성, 중국 상해권과 가까운 지리적 장점, 첨단 핵심부품 공급이 용이한 이점 등을 갖고 있어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무안국제공항이 현실적 제약과 과감히 극복하고 글로벌 시대 서남권 관문·거점공항으로 성장하기 위해 이제는 무안군의 군 공항에 대한 무조건적 협오는 조금 자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소음 피해에 대한 명확한 진실을 알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막무가내의 반대는 무안만이 아니라 전남, 호남 전체의 발전에도 저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해에는 무안군이 대화의 장에 참여하고, 호남의 발전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면하는 생각이 간절하다.

社說

충격적인 야당 대표 테러, 민주주의 위협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일정중 흥기 피습을 당했다. 선거를 앞두고 대낮에 발생한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는 충격적이고 당혹스럽다. 현장에서 불잡힌 이의 흥기로 왼쪽 목 부위를 찔린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은 후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성명을 통해 이구동성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철저한 수사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치인에 대한 물리적 공격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반한다 해서 이를 폭력으로 표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정치 테러'이다.

신당 호남에 '미풍'...민주당 현역 물갈이 관심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3차대 신당의 영향력은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이날 연 신당에 대한 호남 유권자들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낮아 텃밭인 호남 표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새해를 맞아 언론사들이 발표한 여론 조사를 보면 제3차대 신당의 파괴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중앙일보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에서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출범한다면,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바꿀 의향이 있는가"는 질문에 응답자의 74%가 "바꿀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지지 정당을 바꿀 의향이 있다고 답한 18%의 응답자 가운데서는 9%가 이준석 신당을, 7%가 이낙연 신당을 선택했다. 이낙연 신당에 대한 지지 의사를 호남으로 좁혀보면 지지율은 6%로 전국 평균(7%)보다 낮아 오히려 텃밭에서 유권자들의 반응이 더 싸늘했다. 경향신문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도 신당에 투표할 의

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게 어느 신당을 뽑고 싶은지 물었더니 이준석 신당이 25%를 차지한 반면 이낙연 신당은 12%에 그쳤다.

무당층이 30%를 넘나드는 현실을 감안하면 신당의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신당이 공식 출범하지 않고 준비 과정에 있어서 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탓이다. 이낙연 신당이 본인의 고향인 호남에서 더 싸늘한 반응을 얻고 있는 이유는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못할 망정 텃밭에서 분열을 조장한다는 반감 때문이다. 지역 유권자들은 신당 보다는 오히려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 폭이 얼마나 클지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만 하더라도 8개 선거구 가운데 절반 가량에서 현역들이 신인들에게 밀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신당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총선이 다가올수록 유권자들의 관심도 사그라들 것이다.

無等鼓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부산 방문 도중 흥기로 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치권과 국민들 모두 충격에 휩싸였다. 유력 정치인들의 피습 사건은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다. 대부분 지역 방문이나 유세 등 공개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06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10여 일 앞두고 발생한 '커터칼' 피습 사건이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신촌 유세장을 찾았다가 50대 남성으로부터 문구용 커터칼로 얼굴을 공격당했다.

박 전 대표는 병원에서 깨어난 뒤 측근들 지지자들을 결집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전 대표의 이런 대처는 한나라당에 열세였던 판세를 뒤집었다. 최근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022년 3·9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를 위한 서울 신촌 지원 유세 중 70대 유투버에게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했다. 송 전 대표는 응급 수술을 받고도 유세에 나서는 등 '봉대 투혼'을 펼쳤다. 하지만 대선에

서 민주당이 패배하면서 선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흥기나 둔기처럼 생명을 지장을 줄 수 있는 '테러' 수준의 습격이 아니더라도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달걀 세례를 받는 등 대선 후보나 유력 정치인이 계란이나 물을 맞거나, 주먹으로 폭행 당하는 사례는 과거에도 종종 있었다.

이 대표의 피습 사건은 22대 총선을 3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발생했다. 그래서인지 정치권에서는 향후 총선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번 사건에 따른 선거 유히리를 따질 수야 있겠지만, 피해자인 이 대표의 쾌유가 우선이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유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을 향한 잦은 피습 사건에 대해 국내 정치나 우리 사회가 처한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치인 테러는 명백한 범죄다. 반대하는 정치인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 유권자의 몫이 아닐까 싶다. /최권일 정치총괄부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政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채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